

<조사보고>

새마을 농부, 부모님의 농사 이야기

김미정*

<차례>

1. 시작하며
2. 면담 내용
 - (1) 가난하니까 창피하대!
 - (2) 토마토로 일어섰어!
 - (3) 비닐하우스로 농사의 집을 짓고
 - (4) 남과는 다르게 했지
 - (5) 농약하시라 했더니 야단만 맞고
 - (6) 요즘 농사는 더 어렵네!
 - (7) 어두울 때니까 그나마 자립을 한 것 같아!
 - (8) 미안하고 고맙다
3. 마치며

1. 시작하며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이 이토록 삶을 위협하던 때가 또 있을까?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또는 전쟁으로 물자가 귀해지던 때는 있었지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요즘에 와서 음식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음식의 재료는 땅과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다. 그런데 전 세계의 산업

*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화 과정에서 발생한 기후 변화와 유통구조의 변화로 땅과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만은 않게 되었다. 계절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더 다양한 것들을 먹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도 더해졌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이전에는 운송비용 때문에 거래되지 않았던 것들이 수출되고 수입된다. 원거리 수송으로 먹을 것들이 수입되고 먼 거리를 돌아 들어오는 수입품은 식재 보존을 위해 다양한 약품처리를 한다. 보다 더 멀리 넓은 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자 먹을 것들은 땅과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기보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공산품처럼 생산되고 있다. 때문에 이 자연스럽지 않은 곳에서 예전엔 없던 질병들, 조류독감, 광우병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 때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는 신토불이의 구호로 우리 땅에 나는 것이 우리 몸에 좋으니 그것을 먹자는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쇠고기가 그렇듯이 우리 땅에 나는 것은 좋지만 값이 비싸니, 싸고 좋은 것을 들여와 먹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에 이 땅의 식재료들은 외국산과 끊임없는 비교를 당하게 되었다. 정부는 자동차와 휴대폰을 팔아서 값싼 식재료를 수입해 오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논리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있고, 식량자급률을 걱정하며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자제하고 우리 농산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 땅의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싸고 좋은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며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너희들이 외국산을 이길 수 있는 상품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농업이 이 나라의 근본이라던 말은 오래 전의 케케묵은 것이 되어 버렸고, 정부는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농민이 알아서 해야 한다며 농업 보호가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대의 농민은 소비자가 유기농을 원하면 유기농으로

만들어 내고, 맛있는 것을 바라면 더 맛있게 만들고, 이왕이면 값도 저렴하면 좋으니 더 싸게 팔 수 있도록 다재다능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쟁 체제에 용감하게 들어가 우리 땅도 살리고 우리 먹을거리도 살리려는 농민들이 속속 생기고는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자거나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들을 그 지역에서 먹자는 운동이 조금씩 힘을 발휘하면서 대도시에도 속속 생겨나는 식품점들도 있다. ‘한살림’, ‘생협’, ‘초록마을’과 같은 유기농 매장들이다. 그런 매장들은 우리 농업을 살리자는 의식 있는 농부들이 조합원으로 있고, 좋은 품질의 우리 식품을 먹겠다는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 운동의 하나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부는 자기가 만들어낸 작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민들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구매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구하는 이 시스템의 단점은 지역 농산물이 아니라 유기농 또는 무농약 농산물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장거리 운송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무농약 또는 유기농 음식을 원하는 고객을 찾아 먼 거리를 가야 하기에 이전 세대에서는 없었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자신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농부들이 등장했고, 어떻게 홍보하고 고객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농부들의 수익은 달라진다. 고객들은 실시간으로 상품평을 올리기 때문에 농부는 가장 좋은 것만을 생산하고 유통해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인터넷 홍보와 판매 역시 장거리 운송에 의해 먹을 것들이 운반된다. 농부는 이제 만들어 내고 홍보를 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해서 판매시기를 조절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어 상품을 만들어내기까지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알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 도태되고 말 것이

다'라는 불안은 현대 농부들의 새로운 고충이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려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이야말로 농부가 맡은 귀중한 할 일임에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농부는 이 단순한 기쁨을 담보하지 못한다. 풍년에는 종자 값도 안 나와 걱정이고, 가뭄이나 홍수로 작물 수확을 못 할 때는 또다시 일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농부처럼 고위험군의 직업이 또 있을까. 한 세대 전만 해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지어오던 농사를 요즘엔 기계의 도움 없이는 해 낼 수가 없으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자재, 농기구를 위한 자본이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땅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땅은 이미 부동산 투기와 개발 붐으로 값이 올라 버렸다. 버려진 농촌에 귀농을 한 젊은이가 있다 하더라도 옛 방식대로 농사를 지어서는 자식 교육은커녕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맞추기가 어렵다. 농부는 그저 맨 몸으로 되는 것도 아니어서 땅과 농기구와 종자 값, 비료 값, 노동력 등 많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 많은 투자를 하고도 거두어들이는 것은 빈약하니, 농부의 삶은 미래를 가꾸는 것이라기보다 땅에 코를 박고 불안을 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은 은퇴한 농부인 우리 부모님은 어떤 식으로 한 평생을 보내신 것일까, 내가 자랐던 구업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은 살림 초기부터 물려받은 농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농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만큼 배움이 크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자라오면서 내 부모님이 농부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거나 농부이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버지의 밭에는 상인들이 자주 왔고 농장은 월급을 받는 고정 인력이나 농업연수생들이 있어서 풀가동 되고 있는 공장처럼 보였다. 일이 너무 많아 남들이 노는 날 쉬

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밤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일 때문에 스스로를 고생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부모님은 못 배운 탓에 우리 자식 공부는 잘 시켜 보겠다는 마음을 내비칠 때는 우리 허름한 초가집엔 희망의 물결이 가득 넘쳐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기억은 내가 열 살은 훨씬 넘어 앞 뒤 분간하는 지각이 생긴 다음부터였다.

농업학교 같은 텔 다닌 것도 아니고, 몸도 약해서 결혼조차도 여러 처녀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남들이 어렵다며 힘들어하는 원에 농업을 할 수 있었을까. 보리쌀 두 말을 받는 것으로 살림을 냈다던 우리 부모님이 60년대의 가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던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 어째서 일반 농사를 하지 않고 원에 농업에 손을 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 시대에 모두들 그렇게 가난하였고, 가난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말들을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난을 겪고 어떤 다짐을 하였고 어떻게 일어섰던가를 알고 싶었다. 부모님의 생애를 지탱해 온 농사, 지금은 불안한 일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농업이 어떻게 부모님의 한 생애를 지켜준 것이 되었을까.

부모님이 농사지으시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토마토, 참외, 오이, 배추가 보인다. 그리고 보니 농촌이라고 하면 아련히 떠오르는 나무 그늘, 매미 소리, 모깃불 피워 놓은 여름밤 같은 낭만적인 한가로움이 내 추억의 갈피엔 전혀 없다. 그런 일련의 그림들은 텔레비전이나 문학적인 글을 통해 내게 새겨진 이미지였다. 서울 출신이고 친척 중에 시골 사람이 전혀 없는 남편은 내가 보냈던 농촌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남편도 텔레비전과 글을 통해 상상한 시골마을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다. 특히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지었던 농사법이 바로 근대화 농업이라며 새마을 시대의 근대화 농부라고 이름 붙였다. 친정에 갈 때

마다 남편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너도 나도 잘 살아 보자고 외치던 때 전통적인 농업에서 탈피해 새로운 모색을 하던 농민의 이야기를 소중한 자료로 여겼다. 남편은 오래 전부터 우리 부모님을 기록해 책으로 내야하며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지만, 부모님조차도 두 분의 삶이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못 된다고 녹음기를 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거절하기 일쑤였다.

올해 초부터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음식문화연구모임을 하게 되었고 음식을 공부하다 보니 자연히 농업에 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음식과 농업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조금씩 관심이 커지고 있던 가운데 탐라문화연구소 음식문화 모임 회원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엮어 글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부모님과 농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농민의 딸로 태어났으면서도 나를 키운 부모님의 농사짓던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농업과 음식이라는 주제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는 모래알 하나를 주워 드는 심정으로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했다.

게다가 요즘 새삼스럽게 발견한 일은 대형 마트에서 제주산 참외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먹어 왔던 참외는 분명 우리 마을에서 나던 것이었고 그렇다면 무슨 연유로 해서 내 장바구니에 제주참외를 담을 수 없는 것일까. 탐라문화연구소의 음식 문화 모임 사람들과 로컬 푸드 운동에 관해 토론을 하곤 했었지만, 정작 어릴 때 먹었던 과일이 지금은 사라져 버린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어째서 이런 갑작스런 변화가 왔을까, 참외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무관심과 무지로 지나쳐 버리는 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제주의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 제주 감귤은 서

울 가락동 시장을 경유해서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경악하였다. 어찌 그런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낭비가 있단 말인가, 뭔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농업, 음식, 유통과 경제에 관해 상식조차 미천한 나로서는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를 해야 할 것이었다.

20대 이후 나는 시골을 벗어나 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님이 건강 문제로 일찍 농사를 그만 두는 바람에 어찌다 부모님이 계신 시골 친정집을 찾아봐어도 이제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전에는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오이, 참외, 수박, 배추 와 같은 것을 대형 마트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지도 오래 되었다. 마트에서는 점점 더 제철을 잇은 것들이 나오고 지역과 상관없는 것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습관이 되어 버린 나는 이 이상한 변화를 농업과 관련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60년대 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농사를 시작한 부모님을 인터뷰 한다면 한국의 농업 전체는 아니지만 제주 농업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도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부모님의 삶을 들어 보기로 하였다.

내 아버지는 1939년 생으로 1964년에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2남 2녀를 두었다. 출생지는 일본 오사카이지만 광복 후 귀국하여 어린 시절은 전북 이리에서 살다가 본적지인 애월읍 구엄리에 돌아온 것은 18세 이후였다. 18세에서 결혼 전인 26세까지는 농촌 마을에서 자기만의 일을 찾지 못하였고 특별히 농사에 대해 배우지도 않았다. 결혼 후 경제 자립을 위해서 애쓰던 중 원예농업을 하기 시작했다.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는 평생의 직업이었던 농사일을 그만 두었다.

내 어머니는 1942년 생으로 몸이 약한 아버지 대신 몸 놀리는 날 없

이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 결혼 초기에는 바다에서 물질을 하기도 하였으나 농사가 커지면서 해녀 일을 그만 두었다. 지나친 노동 탓인지 40대에 척추에 문제가 생겨 큰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수술 받은 후에도 농사를 놓지 않다가 아버지의 강권으로 10년 전부터는 평생 일하던 농지를 전부 남에게 빌려주고 100여 평의 집 뒷밭에서 채소 정도를 가꾸신다.

면담은 2009년 6월 27일 토요일, 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 부모님 집에서 3시간여 동안 이루어졌다. 면담자는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인 남편과 나, 김미정이었다. 주로 남편이 질문을 하고 나는 보조 질문을 하였으며, 제주도 토박이말을 남편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설명을 곁들이면서 면담이 진행 되었다. 어머니는 몇 번씩 대화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아버지가 설명을 하시는 편으로 어머니의 기억을 수정하거나 보조 설명을 하였다.

면담 내용을 글로 만들기 위해서 세 번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제 1차 작업은 인터뷰 내용 모두를 그대로 글로 옮기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글로 옮긴 것 중에 건강 이야기라든가 최근의 음식에 관한 것, 인사나 안부에 관한 것, 원두막 짓던 이야기 등을 제외시켜 질문에 따라 내용을 갈라 묶었다. 세 번째는 대화중에 면담자가 알아듣지 못해 거듭 물었던 말이나 이야기의 흐름과 관계없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은 제외시켰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제별로 이야기가 모아졌다. 주제별로 묶기 위해 세 번째의 작업 때는 질문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였다. 그래서 면담 대상자인 부모님이 면담자의 질문에 한 번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나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면담 내용이 내 부모님이 겪은 고생담이라기보다 새마을 시대를 산

농부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므로 전체 면담 내용을 시간 순서 그대로 옮기는 대신,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따라 부분적으로 편집하여 옮겼다. 주제로 단 8개의 문장은 면담 중 부모님이 쓰신 표현을 쓰거나 주제를 아우르는 말로 바꾼 것이다.

또한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주를 달아 표준어로 옮겼다. 사실 부모님은 서울 태생인 남편을 향해 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으므로 되도록 표준어를 쓰긴 하였지만, 그 중에는 제주어가 섞이고 사투리처럼 된 일본어가 섞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녹음 내용을 글로 풀어냈을 때 나에게 자연스레 이해가 되는 문장이었는데도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남편은 제주어 특유의 말법, 표준어상에서라면 있어야 할 서술종결형 어미가 사라지는 현상을 해독하기 어려웠다. 이 글에서는 각주를 달아 표준어로 바꾸고 면담 당시의 말법은 그대로 살렸다. 질문은 나와 남편이 함께 했지만, 면담자의 질문은 괄호로 처리하고 누구의 질문인지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면담대상자인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로 표기하였다.

2. 면담 내용

(1) 가난하니까 창피하대!

(처음 농사지을 때는 농사지을 밭도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외할머니가 밭을 빌려 주었어. 어머니가 마음이 좋아서 그걸 주었지. 처음엔 양파 심고, 그것부터 하기 시작했어.

아버지: 너희 외할머니가 300평짜리 옥토를 빌려주고, 앞동산에 있

는 거. 할머니는 박토를 벌고¹⁾ 했어. 거기서 원예를 시작한 거지. 남
안 하는 농사. 일반 농사가 아니고 원예를 한 거지.

남의 밭 병작을 해 봤는데, 보리타작을 해서 밭 가운데 한꺼번에 다
옮겨 놓고 가르는 것 보다는 군데군데 모아 놓고, 딱 한 짐 정도로 저쪽
한 번 나 한 번해서 갈았는데 그것도 송이고²⁾, 밭주인에게 당신이 먼저
가져가란 얘기라. 그런데도 밭 임자가 나를 못마땅해 하더라고. 옛날식
으로 한꺼번에 밭 한 가운데 모아서 가르지 않았다고.

우리는 배고파서 먹지 못할 땐데 쌀밥을 안 했다는 말도 들리고. 병
작을 가르는 날은 쌀밥을 해 가서 밭주인을 대접하고 해야 하는데 그
걸 못했다고 소문이 들리고 하니까, 아니꼬워서 못하겠더라고. 사람
이 아니꼬우니까, 그만 두자 했지. 이런 얘기 있지 않아?. 소의 꼬리
보다 닭 머리 되자고, 남에게 그런 게 아니꼽고 자존심 상하니까 병작
못하겠더라고. 내가 지혜롭게 해도 말이 많으니까. 딱 한 번 병작 하
고 그만 두어 버렸어. 그런 것을 참아지고 하게 안 되더라고. 홍보고
하니까.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잘 기었지³⁾. 도마도 할 때도 말뚝 주워다가
퇴비 만들어서 온상 만들고, 지금은 뭐 거저먹기지.

아버지: 그 단계는 기틀이 잡히기 시작한 후에 구루마⁴⁾ 살 수 있었을
때 이야기고, 한 3년 왜 고생이 되었냐 하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돈 꾸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원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머니

1) 일구고

2) 흥이고

3) 엎드려 일하는 모양, 허리 펴지 못하게 고되게 일하였음을 말함.

4) 자동차의 일본말이나 여기서는 짐 운반용 마차로 달구지를 개조하여 자동차 바퀴를
달고 말이 끌도록 한 마차를 말함. 마차라고도 하고 구루마 라고도 함.

물질 해 오면 그걸 밀천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밥을 먹을까 생각밖에 없을 때니까.

농약통도 없어가지고, (농약통이) 맨 처음에 나온 거 보니까 스피아강⁵⁾ 이라고, 지프차에 보면 쇠로 된 거. (그게) 한 말들이라. 누가 기술 좋은 사람이 분무기로 만든 거 그걸 빌려다 해 보니 농약이 들어가니까 다 썩잖아. 맨⁶⁾ 녹이 피어서 맥히잖아⁷⁾. 그런 걸 보다가 아, 어느 날 보니까, 종묘사에 다니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분무기가 나왔더라고. 플라스틱은 썩거나 하지 않으니까 좋지. 공장에서 나온 거니까. 그걸 이웃 사람하고 돈을 모아서 같이 사려고, 그것을 사려고 돈을 꾸러 다니니까 도저히 아버지 능력으로 못 사겠더라고

(비싸서요?)

아버지: 아니, 내가 없으니까 아무도 돈을 안 꾸줘. 그것이 너무 창피스러워서 어머니 앞에는 내가 이웃에 돈 꾸라고 가게 하질 않았어. 돈 꾸러 가서 안 꾸주니까 나오는데 내가 뒷머리가 막 부끄러워. 내가 못 사니까 돈을 안 꾸주잖아. (돈)있다고 소문 듣고 가도 가면 안 빌려줘. 이러한 아픔을 갖지. 이렇게 어두운 때 이야기야.

중엄에서 도마도⁸⁾ 밭 할 때 원두막도 못 지어가지고, 말방⁹⁾이라고 있어. 연자방앗간이라고. 거기 말방 위에는 영장¹⁰⁾ 묻는 거 장비들

5) 스페어 캔 의 일본식 발음

6) 모두

7) 막히다

8) 토마토

9) 말방 이라고도 함. 말을 이용해 곡식을 찧던 곳

10) 장례,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례식 도구를 마을 공동소유의 말방에 보관하

놓아줬어. 도마도 밭 지키려고 거기서 잤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자냐, 이럴 정도로. 그 때는 살아야 한다고 눈이 벌겍게 될 때니까 강인한 정신 때문에 무서울 때도 모르고, 자식 때문에 강해지는 거지. 지금 하라고 하면 못 하겠어.

한 3년을 매우 고생을 한 거 같아. 64년에 결혼해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독립해서 한 3년 한 것 같아. 고생을 했는데 농사짓기 시작해서 6년 만에 밭을 샀거든. 밭 사니까 경제가 탁 풀렸지. 돈! 어디가도 돈을 꿔주고, 밭 사니까 생각이 확 달라져. 어디가도 돈 꿔주고, 신용이 다 되고. 그러니까 1, 2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할 때 캄캄하지. 그때가 캄캄할 때 어머니가 오즘이란 오즘은 동네 다 다니면서 빌어다가 온상¹¹⁾을 놓자 하면 오즘을 다 모으고. 지금은 씨 뿌리고 요소 뿌리면 되는데 (그때는) 질소 대신 비료 없으니까 오즘을 뿌려야 돼. 비료 대신 오즘을 주었어. 어머니 등짐으로 했어.

(2) 토마토로 일어섰어!

(토마토 농사가 힘드셨네요? 어디서 배우시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시¹²⁾에 사는 이모부집¹³⁾ 가서 도마도 배워 왔어.

아버지: 아버지가 한 3년, 흙 칸다¹⁴⁾ 돌 칸다 하면서 한 3년을 엄청

는 경우가 많았음.

11) 작물의 발아를 위해 따뜻하게 만든 장치, 거름을 아래 깔고 고운 흙을 덮은 다음 씨를 뿌리고 마른풀로 덮어 발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줌.

12) 제주시를 이룸.

13) 아버지의 이모부, 제주시에서 토마토 농사를 지었음.

14) '탄다'의 제주어. 흙과 돌이 탈 정도로 가뭄이 들었다는 뜻.

고생했거든. 도마도가 일 년은 흙 카는 해, 두 해 째는 돌 카는 해 되어가지고, 도마도 심어서 비가 하나도 안 왔어. 다 썩어 버리고. 또 흙 카는 해 돌 카는 해 이렇게 걸렸거든. 2년 동안 그런 일 있으니까, 도마도 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러다가 3년 째 될 때는 비가 잘 왔어. 그 해는 나 혼자만 도마도를 하는 것 같아. 하던 사람들이 없어진 거지. 도마도가 돈을 많이 받게 되어¹⁵⁾. 급성장해서 6년 사이에 돈을 거둬들인 거지.

어머니: 돈을 많이 버니까 피곤하지도 않았어. 마차에 도마도 싣고 가서 동문시장 삼거리에 가서 마차를 세워. 나는 돈 받고 아버지는 (토마토를) 떠 주고. 나중에 와 보면 주머니가 불룩했어.

아버지: 마차를 살 때는 경제지립이 될 때야. 3, 4년 고생 한 것 같아. 그것을 벗어나니까 돈이 예금이 되고, 어느 날 구업에서 제일 큰 밭을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어머니: 그때 130만원 주고 샀으니까, 2200평, 평당 680원.

아버지: 2200평 값을 130만원에 샀는데 그만큼 땅 값도 없었을 때고, 막 큰돈을 벌었다는 것이 되거든.

(토마토는 마차로 실어 나르셨어요?)

아버지: 시에까지 걸어서 다녔지. 왕복 40킬로 다녔어. 하루는 시에서 도마도 팔고 오는데 하도 잠도 못 자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다 못 견뎌 가지고 어머니가 못 걸어가겠다고 잠을 자자고 하더라고. 제주 시서 오다 보면 외도 지서가 있어. 그 옆에 폭낭¹⁶⁾에 말을 묶어 놓고.

15) 되었던 거야, 라는 뜻으로, 화자가 자신을 제 3자로 두고 표현할 때 쓰는 제주말

16) 제주 마을 곳곳에 있는 나무로 그늘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이 쉬는 곳으로 이용함

지서 옆에 말 묶어 놓으면 누구 안 가져 갈 거니까, 자 버렸거든. 신작로 안 넓혔을 때. 자다 보니까 10시가 넘어 버렸대. 피곤한 김에 자 버리다 보니까.

시에서 돌아올 때 마차에서 졸면서 오고 그랬어. 하도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은 졸다가 말 끌면서 떨어진 모양이라. 말은 와닥닥¹⁷⁾ 뛰어서 가 버리고, 내가 말 뒷다리에 떨어지니까 말이 놀라서 뛰어 버리고, 나는 다친 것도 모르고 일어난 보니까. 그래서 차 넘어가는 거 택시 잡아서 오다 보니까 누가 말을 아세아 방송국¹⁸⁾ 앞에 매어 놓아 있더라. 딱 내리니까 전혀 견지를 못해. 다시 그 말을 타고 왔어. 그 말이 순하긴 순해. 어쨌든 걸을 수 없으니까, 다시 마차를 타고 왔지. 그때가 고모네¹⁹⁾가 나라²⁰⁾ 심을 때였거든. 고모가 와서 내가 누운 거 보니까 이상하잖아. 말 구루마²¹⁾에 내가 누운 거 보니까. 고모가 막 울더라고, 내가 피범벅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겠지. 나는 어디가 다쳤는지도 몰라 너무 많이 다쳐서.

어머니: 형철²²⁾이 나던 해.

아버지: 다쳐 가지고 며칠을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고생하였지. 너의 어머니가 소같이 일하는 사람이거든.

(아버지 다치고 나신 토마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17) 후닥닥

18) 하귀리와 구업리 사이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 아세아극동방송국을 말함.

19) 아버지의 고모를 말함

20) 벼

21) 마차

22) 삼남의 이름.

아버지: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느냐? 몸을 다치니까 도저히 도마도를 팔아먹을 재주가 없어. 그래서 너 친구 아버지, 이○○ 아저씨에게 상인을 소개해달라고 했어. 수송을 못 하겠다 해서. 그 상인이 툼툼이 우리 도마도 사 가던 상인이었는데, 도마도 밭 6-700평 할 텐데 그 도마도를 그 상인이 사게 되매²³⁾. 밭으로 헐하게 팔게 돼. 상인은 값이 맞으니까 사게 되여²⁴⁾. 나는 따 주겠다 그거 가져가라 했어. 그런 다음에 원두막을 내가 지키지. 그런데 ○○ 아저씨가 먼 훗날 이야기를 하네. '진짜! 자네, 정직해서 좋은 사람이야!' 하더라고. '덕구 그 사람이 자네 돈을 벌여 주었지만 자네가 양심이 좋아서 그런 거라' 그렇게 이야기 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기 중업에 옛장수가 살았잖아? 그 사람을 시켜서 도마도를 사 오도록 해 봤는데 내가 안 팔더라. 상인이 여자도 시켜보고 모르는 사람을 시켜서 나를 시험해 봤는데 도마도를 사흘 와도 사흘 다 안 팔더라. 밭으로 팔아 버린 거니까 팔 수 없다고 하더라. 다음 해에도 그 상인이 많이 사 가겠다고 더 많이 하라고 권장 받아서 그 다음엔 더 큰 밭에 도마도를 해 가지고 이제는 밭으로 팔게 되여²⁵⁾.

그러니까 다쳐서 헐하게 팔아서 그 상인 만났는데 나 정직한 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게 되서²⁶⁾. 하꼬²⁷⁾로만 계약해서 팔게 되니까 다음 해에 밭을 사게 되더라고.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 도마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았던 것이지.

23) 된 것이야. 라는 뜻으로, 화자가 자신을 제 3자로 두고 표현할 때 쓰는 제주말

24) 되었던 거야. 라는 뜻으로, 화자가 자신을 제 3자로 두고 표현할 때 쓰는 제주말

25) 된 거야, 되었어 의 뜻으로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제 3자의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음.

26) 되었어

27) 상자의 일본말

처음엔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3) 비닐하우스로 농사의 집을 짓고

(아버지가 하우스²⁸⁾ 하실 때는 하우스 하시는 분이 얼마 없었죠?)

아버지: 내가 시작할 때 여기 저기 생겼어. 그 전에는 없었지. 옛날에는 하우스 몰랐고. 70년대 초부터 있었지, 우리는 모슬포에서 하기 시작한 다음에 했고, 제주시에서도 종종 있었고. 우리가 77년부터 조금 씩 했는데 서툴고, 하우스 자재도 없었고, 대로도 만들고, 나도 대로 만들어서 79년도에 지어서 83년까지 4년 하니까 (비닐하우스가) 없어져 버리대²⁹⁾. 왕대로 만들었어. 79년도에 전라도 담양에 가서 사 와서.

(대로 지었어요?)

아버지: 자재가 없었지. 대로 했지. 우리가 85년에 다시 철로 지었는데 70년대 말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70년대에는 구입처도 모르고 어두웠고. 그러니까 어두운 때 농사지어서 아버지는 끝나버렸네 뭐.

지금 사람들은 땅값도 비싸 버리고. 상대적으로 농사지을 땅을 못 사고 있잖아. 어쩌다 잘 된 아이들³⁰⁾ 땅 하나 사는 거 툼툼이 있긴 하는데, 내가 땅 산 거 반도 못 따라와. 그 당시는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땅값은 헐하고. 그렇다고 대대적인 큰 농사는 아닌데, 큰 농사

28) 비닐하우스

29) 버리더라

30) 젊은 사람

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돈을 모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씹씹이도 없었지. 아이들 학원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우스에서는 주로 무슨 농사를 하셨어요?)

아버지: 오이 많이 했어. 오이 하는 사람은 지금 많이 붙어났어. 여기 구엄이 땅이 적어. 면적이. 살아남는 길은 작은 땅에서 평당 수익 높은 것으로 해야지. 그래서 하우스 농사가 제일이었지. 내가 농사를 지을 때는 오이 출하 값을 평당 2만 오천 원에서 3만 원으로 고정시켰는데, 조수익이 4천만 원이 나고, 가을에도 하고 하다 보면 내 뭍이 2, 3천만 원이 떨어지니까 좋았지.

(하우스 농사가 노지³¹⁾ 농사보다 수익이 좋았나요 ?)

아버지: 그때도 밭에서 양배추를 많이들 했는데, 왕창 돈 벌었다가 못 벌게 되면 3년 망하고 그랬는데, 하우스 농사는 고정 수입이었거든. 항상 연간 5천만 원은 매상고가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 거기서 틀리지 않으니까 안정된 농사를 지으니까 그냥 부자될 것도 아니고. 정해진 수입이 되었지. 그러다가 시세 좋으면 6천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법은 없고, 그래서 안정적이었는데, 노지작물은 그렇지 않았지. 불안정해가 지고, 어떤 부류는 계속 3년 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기도 하고, 간냥³²⁾도 마찬가지로, 3년 4년 돈 못 받으면 지쳐서 나자빠지지.

31) 밭

32) 양배추

시세 안 좋으면 허덕허덕 하다가. 그런데 하우스는 그런 것 없었던 이야기지.

구엄엔 땅이 부족해. 젊은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하우스만 하지.

(구엄 땅이 농사짓기엔 어때요?)

아버지: 북군은 하우스 안 되거든. 일조량이 부족해서. 아무리 추워도 별만 나면 하우스는 따뜻하게 열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월부터 2월 까지 석 달은 거의 20일 이상 태양을 못 보잖아.

그래서 겨울에 여기 구름이 짝 찰 때 남군에는 가보니까 서귀포는 구름이 둥글둥글 넘어가던대. 여기는 한라산 맥혀³³⁾ 있는데, 종일 캄캄한데 거기는 툼툼이 별이 나니까, 거기는 파인애플도 하고 그러대, 그러니까 여기는 잘 안 되지, 여기는 별이 안 나니까 춥지. 하우스에도 별이 나야 이슬도 없어지게 하는데, 이슬이 가득 차면 병만 걸리고 광합성 작용 못하지. 오이도 참외도. 그러니까 노지도 육지 참외가 비닐터널해서 먼저 들어오던대. 육지가 추워도 낮에는 따뜻하니까.

어머니: 이젠 여긴 참외도 안 해, 노지³⁴⁾에서 안 해. 육지에서 오니까.

33) 막혀

34) 맨 땅, 하우스 농사가 아닌 경우 노지에서 한다고 함.

(4) 남과는 다르게 했지

(한동안 여기서 참외 많이 했는데 요샌 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아버지: 옛날에야 했지.

어머니: 참외는 많이 했었어. 우리 천 평 이상 했었지. 중엄 밭, 저 아래 큰 밭 해서. 남들하는 것보다 많이, 구엄에서 제일 많이 했어.

아버지: 아버지가 농사하기 전에는 참외도 개구리참외³⁵⁾, 검은 참외들, 그런 거. 재래종은 씨받아서 하고, 그리고 옛날에 천한 사람들이 참외 했지 못 살고 천한 사람이 참외 했어.

어머니: 밭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밭 없는 사람들이 조금씩 한 거지.

아버지: 쟁이라고, 대장은 쟁이, 석공도 쟁이라고 해서 천하게 여기듯 이런 풍토가 있었지. 그러니까 대충 심방³⁶⁾ 할머니들이나 하고 잘 안 해여. 못 사는 사람이 아니면 안 하는 거지. 그게 나쁜 것이 폐습이거든.

재래종은 맛이 없어. 개구리참외 하고 섞어져서. 그것들은 옛날 할머니들이 하던 것이고, 아버지는 개량종을 선택하여서 했지. 교배종은 씨를 받아도 다음 해에 안 되지, 교배종은 안 된다고 하던데 꽃씨도 그렇고. 나는 종묘사에서 씨를 사와서 했어. 그 은천 참외³⁷⁾라고해서

35) 1960년대 초까지 전국 각 지방에서는 강서 참외, 감참외, 골참외, 꿀참외, 성환 참외, 개구리참외, 줄참외, 노랑 참외, 수통 참외 등으로 불리어졌던 재래종 참외가 있었으나 F1 품종의 진출에 따라 급속히 없어졌다.

36) 무당을 이르는 제주어.

37) 1957년 일본에서 도입된 은천참외는 당시 우리나라 재래참외에 비해 당도가 높아 인기가 높았다.

교배종은 키우는 방법이 다르고, 순 따는 방법이 있고. 남과 다르게 한 거지.

어머니: 메론³⁸⁾도 해 봤는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 이젠 참외 하던 사람들도 다들 호박, 단호박 하지, 참외 안 해.

(수박은 요즘도 조천³⁹⁾ 쪽에서는 많이 하던데요!)

아버지: 조천, 함덕⁴⁰⁾! 60년대에도 함덕 수박이 구루마로 동문시장에 막 들어왔었거든. 내 생각인데 80년대에 와서 신임 수박도 번창한 것 같아. 70년대는 모두 함덕 수박. 배추도 함덕 배추. 이렇게 했으니까.

(배추도 했었지요?)

아버지: 여기도 배추도 꽤 했는데 함덕 배추 다음이었지. 여기도 함덕 만큼은 아니어도 봄배추도 했는데 그러니까 함덕이 훨씬 더 앞선 상태에서 한 거고. 우린 함덕에 구경도 못 가 보고. 함덕에서 통배추 나와도, 원, 제주시도 걸어가는 때인데! 함덕에 가 볼 생각도 못하고 함덕이 어딘지도 몰라. 그만큼 어두운 시절이지.

그래도 결국 배추⁴¹⁾를 알아가지고, 아버지는 결혼해서 곧 결국 배추를 시도했으니까.

38) 참외를 이르는 외래어나 여기서는 참외종류의 하나로 말하는 것임.

39) 제주시 동쪽 지역 마을.

40) 제주시 동쪽 지역 마을.

41) 통배추, 김장 배추처럼 둥그렇게 포기가 생기는 배추를 말함.

(전에는 제주도에 결구 배추가 원래 없었어요?)

아버지: 음, 납작납작 퍼대기⁴²⁾ 배추 먹었었지.

재래 참외를 해 나면⁴³⁾ 그 밭에서 동네 사람들이 보리파종 하기 전에 할 작물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김장 배추를 한 고지⁴⁴⁾씩 갱이로 파고 쇠스랑으로 파고해서 여기서 저기까지(앉아 있던 마루 끝을 가리키며) 이런 정도로 조금씩, 동네 사람이 왈각 모다 들어.⁴⁵⁾ 밭 같고 나면 다 주니까⁴⁶⁾. (거기에다) 배추씨 뿌려서 발로 자근자근 밟아. 밟아씨를. 납작납작 한 거지⁴⁷⁾.

아버지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납작 2호 라고 해서 아버지가 (농사) 배울 때 종묘사에 가니까 결구 배추가 있더라고, 결구 배추를 심으니까 결구가 되더라고. 그런 것도 해 보고, 봄배추는 그때 하니까 결구를 앉아⁴⁸⁾. 그게 60년대 말이지. 다른 사람들이 안 할 때야. 잘 안 할 때지. 책 보고 하니까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창하기 시작한 건데. 그 전까지는 납작납작한 배추를 먹었으니까. 재래종은 납작납작한 거, 포기 안 되는 거. 질기지 그게.

어머니: 그리고 집에서 절이지도 않고 다 바닷물에 가서 절이고 와서 김장행 떡국⁴⁹⁾.

42) 포기가 생기지 않고 납작하게 퍼져 자라는 배추

43) 하고 나면

44) 고랑

45) '모여 들지'의 뜻으로 행위자의 행동을 청자에게 전하고 있음.

46) 밭 같고 나면 땅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었다는 뜻

47) 배추가 납작하였다는 말

48) 배추의 속이 찻다는 뜻

49) 김장해서 먹고

(5) 농약하시라 했더니 야단만 맞고!

(아버지가 농사 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아버지: 조밭에 멸강나방⁵⁰⁾이 궤었어⁵¹⁾. 분무기로 농약을 해야겠는데 앞동산 밭 앞에 10평짜리 땅이 있는데 그 밭의 할머니가 조를 갈았고 나도 그 옆 밭에 외할머니 밭에 조가 있는데 나는 약을 했거든. 내가 약을 하고 그 할머니에게 이걸로 약을 하십서⁵²⁾ 그렇게 빌지만 말고!⁵³⁾ 이렇게 말하니까 쏠! 아이 것⁵⁴⁾이 뭐 이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 할머니가 아버지가 스물 몇 살이라고 어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 참, 옛날 할머니들은 병나면 밭고 밭에 버렁이⁵⁵⁾ 피어도 밭고 해서.⁵⁶⁾ 멸강 나방은 사흘만 있으면 (작물을) 싹 먹어버리거든. 이게 멸강 나방이란 게 피게 되면 엄청나거든. 십 년에 한 번씩 그래. 지금도 목장에 생기면 목장을 초토화 해 버리거든. 메뚜기떼 모양으로. 그런 멸강 나방 있어. 나도 그때 약 할 때 살충제 살균제 잘 모를 때, 무식해서. 그때도 이피엔(EPN⁵⁷⁾) 약 하나 알아가지고 약을 하니까 잘 죽더라고.

50)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에 걸쳐 날아오는 나비목의 해충이다. 성충으로 날아와 시냇가와 수풀 등에 알을 무더기로 낳고 이 알들은 4~5일이면 부화해 애벌레로 자라 작물의 잎을 밤낮없이 갉아먹어 큰 피해를 입힌다. 특히 번식력이 강하고 무리를 지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토를 멸망시킨다'는 의미로 멸강나방이라 불린다.

51) 생겼어

52) 하십시오

53) 말고요

54) 짧은 것이

55) 벌레

56) 했어

57) 이피엔(EPN) 농약은 사과, 배, 담배 등에 진딧물, 잎말이 나방 등에 쓰는 살충제로 사용됨

아버지가 참외 할 때 병에 걸리면 흰가루병⁵⁸⁾이 걸려⁵⁹⁾. 이걸 카세인이라는 약을 해야 한다고 아버지는 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거라. 진흥원⁶⁰⁾에도 가서 받고, 거긴 처삼촌이 있었으니까. 거길 간 거라. 진흥원만 찾아 다녀. 처삼촌이 계장으로 있었으니까 가면 직원들이 가르쳐주더라고요. 이런 약을 이렇게 써라 약을 안내해 줘. 카세인도 1파운드가 약 450그램이라는 거 왜 아냐 하면 그때는 미국약이 3파운드씩 나와. 다이센도 3파운드씩 나와. 그래서 1파운드가 약 450그램이라는 걸 그래서 아는 거지. 다이센은 살균제고, 카이센은 흰가루병약인데, 할머니에게 약을 하라고 하면 부정탄다고 '쉬!', 부정탄다 하는 거라 내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병 걸리지 말라고 사람이 몸 아파도 빌었거든. 밭에 가서 딱 해 놓고 비는 거야.

어머니: 참외밭에도 벌거지⁶¹⁾ 괴지 말라고 물어 해다가 빌어⁶²⁾

아버지: 아버지는 이런 때 신식 농사를 지은 거지. 너가 뭐 아느냐 이거였지, 부정탄다고. 그러다가 그것도 3년 다 못 돼서 소멸되고, 내 것(작물)이 잘 달리니까 나를 따라오기 시작한 거지. 이런 어두운 때 시작을 한 것이지.

58) 잎, 덩굴, 열매 등에 발생하며 잎에서는 발병초기에 백색, 백록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커지면 회백색을 띤 가루모양의 곰팡이가 덮임. 병든 잎은 기형이 되고 어린 과실에 발생되면 생장이 늦어짐...

59) 걸리더구나, 걸렸어.

60) 농촌진흥원

61) 벌레

62) 벌레 생기지 말게 해 달라고 물어를 삶아 놓고 빌었어

(6) 요즘 농사는 더 어렵네!

(요새는 농약이 옛날보다 더 강해졌다면서요?)

아버지: 농약도 아주, 옛날 농약하고 틀리고⁶³⁾, 영양제도 틀리고. 나 할 때랑 하늘과 땅 차이라서 하나도 몰라. 고기 섞어서 영양제 만들고 액비, 그거는 작물이 윤기가 있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농사를) 끊어 버렸으니까. 그거 남들 시작할 때 나는 농사 그만 두었으니까. 뭐 유기농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고등어 하고 각재기 하고 고기 썬해서 액비하고 영양제를 한다니까 농약보다는 낫겠지. 아마 삼 요소⁶⁴⁾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도 몰라. 지금은 병충해도 엄청나고.

옛날 우리 오이 할 때 흑성병⁶⁵⁾을 어쩌다 한 번씩 봤는데. 흑성병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해. 오이가 크는데 푹푹 점이 박아져⁶⁶⁾. 검은별무늬 병이지. 그런 것들을 잡을 수가 없거든. 참외를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참외)줄 걷어 보면 모두 그 병 걸려있어. 그런데 약을 하면 참외가 작아져 버리고 오이도 짧아져 버려. 그러한 걱정들이 내가 농사지을 때는 어쩌다 하나 와서 타격 받을 정도는 아니고 조금, 밭 전체해도 한 콘테나⁶⁷⁾ 두 콘테나 하는 정도였고 그러다가 말고 했는데 이제는 왕창 생기면 농사, 폐농 되어 버린대.

63) 다르고

64) 관행 농법의 N(질소), P(인산), K(가리)를 말함.

65) 검은별무늬병, 주로 잎과 과실에 발생하며 잎 앞면에 직경 2~3mm의 녹색 반점이 나타나고 갈색의 가루가 덮히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66) 박혀

67) 오이나 참외 등 농작물을 담거나 물건을 옮길 때 쓰는 플라스틱 용기

옛날에는 고정된 약이었거든. 농약도 나대로 약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자꾸 약도 개발되고 그렇게 안 되는가 봐. 살균제도 쓰다가 남으면 다시 쓰고 했는데. 약도 이젠 엄청 비싸고, 우리가 쓰던 이펜이라는 약이나 그런 거는 이젠 벌레가 안 죽는데. 그런 약들을 쓰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한국종은 웬만하면 죽었는데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나방들이 강해 놓으니까, 난 이제 약 몰라. 이제는 농약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 전에는 20 가지 범위에서 썼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바뀌니까. (농약 이름을) 외울 이유도 없고.

배추가 먹으면 얼마나 좋아. 배추가 좋은 음식인데 하지만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벌레가 엄청 낄 때거든. 사흘에 한 번씩 약 안고는 벌레가 괴어 가지고 (배추가) 안 되지. 농약이 얼마나 독하냐, 무서워. 해장국 먹으러 가서 먹으면서도 이거 농약 먹어점신가⁶⁸⁾ 생각도 되고.

요즘엔 지오텍스⁶⁹⁾ 라는 약이 있는데 한 달 동안 벌레가 안 핀다고 하대. 간남⁷⁰⁾에도 지오텍스 독한 약을 쓰면 포기 안에 들어가서 잔류 독성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약을 치면서 나 돈 벌면 되니까 치고 팔아버리면 된다고 하지만...

3일 후엔 먹으면 된다는 에이팜⁷¹⁾이라는 약, 급속으로 벌레가 죽고 (독성이) 빨리 없어지는 약을, 그런 약을 쓰면 좋은데. (사람들이) 안 쓰잖아.

68) 먹고 있는 건가

69) 살충제의 상품명

70) 양배추

71) 살충제의 상품명

(7) 어두울 때니까 그나마 자립을 한 것 같아!

(이제 다시 농사지어야 하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버지: 그렇겠지, 그때는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남았냐 하면, 요즘은 육지에서 참외도 오고 수박도 오고 하지만 그때는 거의 안 왔지. 교통이 나쁘니까. 70년대도 제주도가 교통이 나쁘니까, 그리고 모슬포 쪽에도 차가 못 가지. 교통이 나쁘니까. 어디로 와? 일주도로만 있을 때, 포장도 안 되고 했을 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참외고 도마도고 했던 거지. 나중에 이쪽이 저,⁷²⁾ 모슬포에게. 모슬포는 바람이 불어도 별이 나니까 그래서 모슬포로 시작해서 중문으로 남쪽에는 (작물) 더 빨리 나오더라고.

옛날에도 모슬포 도마도가 유명했어. 그런데 거리가 멀거든. 우리 것이 품질은 떨어져도 가까운 데서 사 간다고, 그 호자 상회⁷³⁾에서도 우리 것을 계약해서 쪽 상회에서 사가고 그랬는데..., 산업도로 안 날 때 일주도로만 다니려면 거리가 멀거든. 장사는 한 시를 다투는데, 거기 다녀오려면 여기를 두 번 왔다 갔다 할 거거든.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농사가 살아남은 것이지. 이제는 교통이 좋아 버리니까 여기로 오나 거기로 가나 차이가 안 나와. 막상 해야 10분, 20분 차이. 그래서 아버지가 82년도 큰 태풍에 배추 묘종을 살려서 큰돈을 벌었던 것도 일단 태풍에 쓸리면 육지 배추가 못 들어오니까. 교통이 나빠서. 배추를 해도 육지 것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품귀하면 여기 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72) 진다

73) 도매로 거래하던 가게의 이름

지금은 안 돼. 육지 것이 같이 경쟁 되고 막 들어오니까. 농산물이 한국 게 높아도 중국 게 들어오면 (값이) 평준화되듯이. 꼭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안 돼. 지금 사람들은 힘들지. 내가 농사지을 때는 큰돈은 아니더라도 상상 외로 톱툰이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하대. 어두운 돈이 없다는 거지. 태풍이고 오고 해서 폭등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지.

아버지가 시금치를 갈아서 94년도에 평당 만원씩을 받아 봤는데 그거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이거든. 지금 같으면 2만원 돈 되는 것이겠지. 한데 그런 돈을, 그때 일당도 지금의 십 분의 일로 줄일 때⁷⁴⁾. 94년에 내가 심장 수술 받을 때 어머니가 1300만원 받아 왔더라. 그 시금치, 가을에 농약도 안 하고 씨 뿌려 놔두니까 어느 날 컸는데, 태풍으로 육지 것이 안 되니까 여기 육지 것 안 들어오고 이런 때 해서 그런 것인데, 이젠 그런 돈 못 번대. 그렇다고 모두 다 번 것은 아니고. 운 좋은 사람은 당첨되듯 아다리⁷⁵⁾가 되는 거고, 그러나 나는 그런 돈을 톱툰이 구경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라.

(8) 미안하고 고맙다.

(아버지 편찮으실 땐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셨죠?)

아버지: 농사할 때는 어머니가 몸이 괴롭고 하는지도 (나는) 몰랐어. 나도 몸이 괴롭고 하니까. 밭에 가서 짐이 있으면 너의 어머니는 무거운 것 같아 보이는 걸 자기가 지겠다고 하더라. 나에겐 좀 가벼워 보이는

74) 적을 때

75) 해당되었다는 뜻의 일본말

거 지랭 허곡.⁷⁶⁾ 그러한 일들을 절대 잊지 않지. 아버지 마음에는 항상 어머니가 고생했다는 것이 남아 있지. 어머니 허리 병 나서 등 굽은 거, 다 젊을 때 고생해서 생긴 거로구나 생각하지. 그래서 이제는 고생을 그만 하라는 거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어머니는 지금도 툽툽 동네 아주망덜 허곡⁷⁷⁾ 일히러 가겠다고 허영⁷⁸⁾ 나를 건드리더라.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건 어머니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거든. 이젠 늙었으니까 적당히 놀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 고생해서 이렇게라도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관광 갈 때도 웃도 사라 하는데도 어머니가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어.

3. 마치며

구엄리는 제주시에서 약 20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안가와 일주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 구엄 마을은 전통적인 농어촌마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을 했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이 시대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필요한 곡식을 지어 먹고 잉여분의 농산물은 가까운 시장에 가서 교환하는 정도의 생활이었다. 그래서 마을엔 정미소가 있었고 정미소에서는 주로 보리쌀을 정미했다. 농토 중에 논이 적었으니 쌀은 비쌌고, 보리에 비해 구하기 어려운 쌀은 관혼상제 때나 이용하는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76) 지라고 하고

77) 아주머니들하고

78) 해서

전통농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마을에 갓 결혼한 20대의 부모님이 시작한 신식농업과 농법은 어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병해충을 막기 위해서 마을 할머니는 떡을 해다 놓고 빌었지만, 아버지는 농약을 쳤다. 마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고수해 오던 농작법을 바꿀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농촌지도소와 종묘사 등지에서 신식농법을 배우려 하였다. 처음 몇 해는 부모님의 농법은 배척되었으나 수확이 좋은 것을 눈으로 본 마을 사람들이 곧 따라왔다. 이때의 신식 농법이란 비료와 농약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은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비닐하우스를 시작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토마토와 오이를 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작목반을 만들어 비닐하우스 농사를 함께 하기 시작했다. 보리, 조, 콩을 주로 하던 밭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고 이전 사람들은 안 하던 방식으로 참외, 배추, 일부에서는 수박도 하기 시작했다. 70년대 중반이 되자 구엄 마을에서 잘 산다 하면 일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비닐하우스에서의 원예농업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구엄리는 제주시를 옆에 둔 도시 근교 농업생산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내에서 가까웠던 구엄리가 식물의 생장지로서 더 적합했던 모슬포 보다 교통면에서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었다. 제주시의 유통업자들에게는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먼 거리를 다녀야 하는 불편보다는 빠른 시간에 물건확보가 가능한 구엄리가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였다. 그러나 차차 제주도의 도로상황이 나아졌고 제주시와 모슬포 간 이동 시간이 좁혀짐에 따라 상품의 질을 따지게 되면서 구엄리는 모슬포와 비교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구엄리는 땅 면적에서도 다른 마을보다 작았기 때문에 농토가 적었고, 단일 품종을 넓은

면적에 심어 소득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다. 부모님이 시작한 비닐하우스 농사는 구엄 마을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른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수입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다른 상황이 되고 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때와 달리 그 사이 농약이 달라지고 비료도 달라졌다. 부모님은 당신들이 쓰던 농약이 이즈음의 병충해에 잘 듣지 않을뿐더러 예전보다 강한 병충해가 생기는 바람에 더 독한 약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농약이 독해지면서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위협해졌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생기는 바람에 대형 마트에 들어가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긴 했지만,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효과가 오래가는 독한 약을 쓴다고 걱정을 한다.

농업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지만 농민인 부모님조차도 현대 농업이 지닌 여러 문제에 안심하지 못한다. 농약과 비료로 황폐해지고 있는 농토를 직접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대신 쓰면 땅을 회복시켜줄 좋은 거름도 축산업의 변화와 함께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통이 덜 발달 하였을 때는 어떤 지역과 상권이 결합되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지금은 유통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바람에 품질에서 최고거나 가격이 아주 싸거나 하지 않으면 판로를 열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농산물 수입이 허용되고 나서부터는 참깨, 콩, 팥 등 중국산보다 더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없는 작물들은 더 이상 심지 않게 되었고,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는 작물을 심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시장의 변화는 농업을 일종의 투기산업으로까지 변질 시키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돈을 벌고 어느 해에는 투입한 자본은 물론, 농민

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도 보상받지 못한다. 농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 농산물을 만드느냐 하는 것보다 이 위태로운 경제의 물결 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로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님의 농사 이야기는 작은 구업 마을에서의 농사 이야기지만 제주 농업, 나아가 한국 농업의 일면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두운 시대'에 남보다 좀 더 밝은 눈을 가진 바람에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전통 농업의 시대에서 새마을의 근대농업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과정은 너무나 빠른 변화 때문에 지난 시절의 소박한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기간이기도 하다.

전통농업 시대에서 근대화 농업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농토는 빠르게 황폐화 되었고, 비료와 농약을 통해 수확을 보장받으려는 욕심은 질 좋은 농산물을 내놓지 못해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도 만들었다.

지난 30-40년 전의 제주는 지금보다 경제형편은 더 어려웠지만 요즘 건강한 먹을거리 운동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로컬 푸드 운동(지역 농산물 먹기 운동)이 없이도 지역산물을 먹는 일은 오히려 자연스런 것이었다. 부모님은 그 시대를 '어두운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그때는 제주와 육지 지방의 유통이 지금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주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이 땅 안에서 자급해야 했다. 제주도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이곳 제주에서 키워내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 땅은 주 작목인 감귤 이외에도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여 제주사람에게 공급했고 운동차원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지역 농산물을 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통이 발달하고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면서 제주 땅은 자급을 위한 다품종 재배에서 차츰 환금작물인 단일 품종 재배로 농업 형태가 변하였다. 여기 보다 맛이 좋은 육지 것이 들어오고, 여기보다 싼 중국산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주에서 재배하던 농산물은 가격과 질의 비교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 땅에 심어 수확하는 것들이 육지 지방에서 출하되는 산물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보니 제주 농토는 몇 개 안 되는 단일 작물로 재배 산물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돈이 되는 단일 품종을 심어 팔고, 이곳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사 먹는 체제로 되었다. 각자의 자급을 위해 필요한 농산물을 심는 농사가 아니라, 가장 돈이 잘 될 것 하나를 심어서 다른 먹을거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종종 산지의 공급물량 조절이 실패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농민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 농토를 가졌으나 먹을 것을 키우지 못하는 것이다.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농부들이 생겨났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다. 농사란 먹을 것을 키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농토를 회복시켜야 좋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자각을 하는 농부들이 있고, 그런 농부들에게 판로를 허용하는 시스템이 작게나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제주군 애월읍에서는 농약잔류검사에서 3 번 이상 걸린 농가에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일은 농민 스스로의 자각과 기관의 노력이 함께 하는 좋은 본보기이다. 국가는 수출에 힘쓰느라 농업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각 지역의 기관과 그 지방의 농부들은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농부들이 농토를 살리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이 아

니라 자연친화적인 재료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나는 믿을 수 있는 산물을 먹는 게 좋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식당에 가 보면 식품원자재 표시를 하고 있고 소비자 또한 안심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은 질보다 양이라는 산업시대의 가치관을 허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함을 지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과정에서 먹을거리의 중요성, 그 음식 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다시 전통농업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인식도가 격이 싸기만 한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땅에서 정직하게 키운 것들을 찾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지역농산물 운동으로까지 관심을 넓히게 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연료를 들여 먼 거리를 수송해야 가능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환경 문제와 아울러 확산되고 있다.

부모님과 짧은 면담과 그동안 보고 느낀 것만으로 농업의 현실과 미래, 제주의 농업과 한국의 경제, 그리고 지역농산물 운동에까지 아우르는 글을 쓰기란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선 면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려 한다. 그런데 정리하다보니 한 농부의 이야기에 이 모든 문제가 담겨 있음을 느끼고 있다.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나는 앞으로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것들에 늘 관심을 갖고 살고 싶기에 그 기본이 되는 농업에 관하여 앞으로 공부할 게 많다.

면담 내용을 글로 옮기며 부모님의 삶의 과정을 그림 그리듯 다시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이 일은 내 어린 시절의 회미한 기억에 색칠을 해

주는 것과 같았다. 더러는 알고 있던 일이거나 보지 못하던 부모님의 뒷면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책으로 낼 이야기라며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 주십사 녹음기를 들이댔을 때는 이야기하길 거절하던 부모님이 딸이 논문을 써야 할 자료를 찾고 있다 하니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셨다. 너무 가난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야 했던 자신들의 삶을 드러내는 일은 자식 앞이어도 쑥스러운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절을 솔직히 보여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 내 주셨으니 자식인 나로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중반부터였고 90년대 말부터 농사 규모를 줄이다가 이제는 모두 그만 두셨다. 부모님의 농사기간과 내 성장의 시간이 겹친다. 어머니의 굵은 허리는 농사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자식들의 삶을 세울 기둥으로 쓰신 것이다.

면담을 통해 한 농사꾼이 겪는 힘겨운 시간과 성공, 그리고 농사일로 인해 생긴 직업병을 갖고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면담의 기록은 나와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농촌에서 자란 세대들의 공통된 경험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새마을 운동의 구호처럼 가난을 벗고 잘 살기 위해 애쓰던 6·70년대 농촌의 현실과 역경 극복의 과정도 볼 수 있었다. 이 면담은 제주도의 작은 마을 구엄리에서 신식농사를 지은 한 농부의 이야기이면서, 새마을 시대의 우리나라 농민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도 될 것이다.

이 땅의 농민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의 삶이 또 얼마나 다양함에도 나는 이제야 겨우 내 부모님의 농사 이야기를 듣고 이 글 하나를 만들었다. 새마을 시대의 농부 이야기를 들었으니 나는 또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다른 농부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농업 분야는 실로 다양해서 원예 농업도 여러 갈래, 나로선 생경한 쪽인

축산업, 양돈업의 분야도 있고, 감귤, 마늘과 당근 등의 특용작물 분야도 있다. 제주도 농민이 아니라 육지 지방의 농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지금의 내 생각이다. 너른 바닷가에서 모래 한 알 겨우 주운 사람치고는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꿈이 너무 큰 것인가? 그 꿈의 첫발을 떼게 해 준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교신 : 김미정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E-mail : hayanjib1204@hanmail.net 전화 : 010-6440-5413)

논문투고일 2009. 07. 27.

게재확정일 2009. 08. 10.

